# 청춘의 기상과 용맹으로 전진하는 조선

세계에 존엄떨치는 공화국의 위상을 더욱 뚜렷이 부각시키는 화폭이 있다.

그것은 조선청년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이다.

사상과 정신이 건전하며 단결되고 열정에 넘친 청년대군의 무한대한 힘에 의해 사회가 들끓고 약동하는 나라.

공화국의 이 경이적인 현실을 두고 세상사람들은 끌없이 밝은 미래를 가진 나라,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이라고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있다.

* *

평양시 서포지구 새 거리 건설장.

언제인가 백열전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나고있는 이곳 건설장으로 경제선동을 나왔던 한 처녀가 한 말이 있다.

《여기 서포전역이야말로 우리 시대 청춘이라면 누구나 달려오는 곳이 아닙니까.》

옳은 말이다.

힘과 젊음이 넘쳐나는 구리빛얼굴의 청년들,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남자들 못지 않은 일솜씨를 과시하는 처녀돌격대원들, 이마에 내돋는 땀방울을 연신 훔치며 부지런히 일손을 놀리는 지원자들속에는 청년미술가, 청년로동자, 청년대학생들도 많다.

나이와 고향은 서로 다르지만 《우리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 수도 평양을 위하여!》라는 하나의 지향을 안고 이곳으로 달려온 청년들, 그들의 슬기와 용맹을 주추로 하여 하루가 몰라보게 변모되여가는 서포전역의 희한한 번혁적실체들을 가슴후덥게 안아보며 누구나 새기는것은 미덥고 훌륭한 청년들의 대부대를 가진 공화국의 신심넘친 오늘과 더 좋을 래일에 대한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이다.

이 행성을 둘러보면 황금만능과 약육강식의 법칙, 퇴폐적인 생활양식에 쩌들어 자기밖에 모르는 속물로, 정신적불구자로, 범죄자로 전락된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가.

남조선청년들의 실태는 더욱 심각하다.

남조선에서는 많은 청년들이 일신의 안일과 향락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서슴지 않는 정신적불구자, 타락과 방종에 물젖은 패륜아, 돈과 물건의 노예, 폭력을 일종의 유희, 도락으로 여기는 범죄자, 비관주의와 염세주의에 빠진 타락분자, 자살자들로 굴러떨어져 사회적비난을 받고있다.

이것은 개인주의와 황금만능의 풍조,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고 퇴폐적인 사상문화가 범람하는 남조선사회가 산생시킨 비극적인 청년실태이다.

얼마나 대조적인가. 청년이라는 부름은 하나이지만 이 땅에서는 청춘의 젊음과 기상으로 사회가 들끓고 시대가 전진하고있다.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 강동온실농장건설장을 찾아가보아도 그렇고 수천척지하막장과 사회주의전야, 두메산골과 어촌 그 어디를 가보아도 기적과 위훈창조의 맨 앞장에서 달려나가는 청년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 조국을 위한 길에 뚜렷한 흔적을 남길 불같은 일념으로 탄전으로, 농장으로, 대건설장으로, 섬마을로 주저없이 달려나가는 미덥고 끌끌한 청년들의 대오는 그 얼마이며 아름다운 미덕과 미풍으로 시대를 격동시키는 청년미풍선구자들의 소행은 또 얼마나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는것인가.

하기에 공화국을 방문하였던 한 외국인은 이렇게 토로하였다.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청년들이 사회의 심중한 우려를 자아내는 범죄와 도덕적인 타락, 사회적불안정을 낳는 기본요소로 간주되고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청년들이 나라와 민족의 귀중한 꽃으로, 사회의 진보와 발전의 가장 힘있는 력량으로 되고있다. 사상정신적으로 투철하고 도덕적으로 고결하며 단결력에 있어서 뛰여난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하여 이르는 곳마다에서는 기적과 혁신의 불바람이 일어나고있다. 정말 조선이 부럽다.》

청년들이 시대의 꽃으로, 나라와 민족의 양양한 앞날을 열어나가는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로 자랑떨치는 공화국의 현실은 청년중시를 혁명의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시고 언제나 청년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내세워주신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청년사업으로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청년운동에 관한 주체적인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였으며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에 대한 락관과 숭고한 미래관을 지니시고 청년사업을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이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년들이 강하면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으며 그 어떤 강적도 때려부실수 있다고 하시면서 청년들을 제일로 믿고 사랑해주시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년들이란 곧 미래이다, 청년들이 없으면 미래가 없다, 청년들이 어떻게 준비되는가에 따라 조국의 앞날이 좌우되고 혁명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시면서 청년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청년들을 위해서는 나라의 억만재부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한마디로 말하여 최대한으로 내세우고 최대한으로 사랑하라는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청년들에 대한 가장 옳바른 태도와 립장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이렇듯 청년들을 시대의 주인공으로, 혁명의 계승자들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있어 애국청년들의 대부대가 자라나게 되였다.

오늘 조선청년운동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중시사상과 령도업적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자기 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서고있다.

지금도 청년운동사적관을 찾는 사람들은 뜻깊은 글발앞에서 쉬이 걸음을 떼지 못한다.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강성할 래일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

김 정 은

2012. 1. 26》

정녕 그것은 청년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절대적인 믿음과 열렬한 기대의 표시이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독창적인 청년중시사상을 빛나게 구현해나가시려는 그이의 드팀없는 의지의 선언이였다.

청년들이 강해야 당도 강하고 국가도 강해진다는 철석의 신조를 지니시였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청년문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공화국의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선봉대, 돌격대로 억세게 키우기 위하여 끝없는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였다.

예로부터 자식을 키우는데 오만자루의 품이 든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청년들을 훌륭히 키우기 위한 사업에 십만자루, 백만자루의 품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며 나라의 천만가지 일을 돌보시는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청년동맹 일군들을 키우는 문제로부터 청년들을 교양하는 문제, 청년들이 사회의 모든 분야를 발전시키는데서 선봉에 서도록 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신분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공화국의 인민들은 오늘도 산세험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을 찾고 또 찾으시며 크나큰 사랑과 믿음으로 청년들을 영웅청년신화의 창조자들로 키워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한 령도의 자욱자욱을 잊을수 없다.

발전소건설장을 처음으로 찾으신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런 험한 곳에서, 상상할수 없는 혹한속에서 거창한 대상건설을 한다는것은 우리 당의 품속에서 교양육성된 조선청년들만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 하시면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당시)는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수 있는 대상이면서도 우리 당력사에 청년들이 새기는 또 하나의 빛나는 자욱으로 된다고 하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청년들의 발걸음속도가 높아야 조국의 전진속도도 빨라진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믿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또 어디 있으랴.

하늘같은 그 은정을 생명선으로, 피줄기로 간직하였기에 우리 청년들은 당의 믿음이면 지구도 든다는 신념과 배짱을 안고 당에서 준 과업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완벽하게 해제끼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태양이 없는 꽃을 생각할수 없듯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을 떠나 공화국의 청년들의 값높은 삶과 위훈에 대하여 어찌 생각할수 있으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청년사업이 시대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활력있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제기되는 문제들을 료해하시고 그 대책들도 하나하나 세워주시였다.

청년운동사적관건설문제며 체불체육단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 《청년전위》, 《새날》을 비롯한 각종 신문과 잡지, 교양자료발행에 이르기까지 청년사업과 관련한 모든 문제들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신 하많은 사연을 어찌 다 전할수 있으랴.

백두산영웅청년위훈전시관을 훌륭히 꾸려 백두청춘들의 위훈을 길이길이 전해가도록 하신 사실, 속도전청년돌격대가 강위력한 건설부대로서의 자기의 혁명적본태를 살려 부강조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위력을 남김없이 떨쳐나가도록 이끌어주신 이야기, 청년중앙예술선전대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혁명의 북소리를 더 높이 울려가도록 하신 사연…

참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은 공화국의 청년들의 삶을 최고의 경지에서 빛내여주시는 자애로운 스승, 위대한 어버이이시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청년들이 있지만 공화국에서처럼 청년들이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로, 혁명의 계승자들로 떠받들리우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의 오직 한길로 질풍노도쳐 나아가는 공화국 애국청년대군의 거세찬 진군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희세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가 있어 조선청년운동은 최전성기를 영원히 구가할것이며 공화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할것이다.

본사기자 김 영 범

## 강국의 지도자

# 미래를 가꾸어가시는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미래에 대한 열화와 같은 사랑을 지니시고 더더욱 강성하고 휘황찬란한 래일을 가꾸어가시는 절세의 위인이시다.

공화국에서는 미래사랑이라는 말이 자주 울려나오고있다.

미래사랑. 이 말을 외워보는 공화국인민 누구나 이야기하군 한다.

우리 원수님은 정말 아이들을 세상에서 제일 고와하신다고, 그것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타고나시여 위대한 심장에서 뿜어져나오는 어버이의 진정의 분출이라고.

력사에는 아이들을 사랑한 위인들에 대한 미담들이 많이도 전해지고있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처럼 아이들과 그렇게도 허물없이 어울리시며 꼬마《의사》의 《진찰》까지 받으시고 최전연 섬마을의 아기의 첫돌까지 잊지 않으시고 생일선물을 안고 가시는분, 빨간별을 제일 좋아하는 동심까지 헤아리시고 좋은 일을 찾아한 총각애에게 빨간별 다섯개가 그려진 회답편지도 보내주시고 잠자는 아기의 포단을 꽁꽁 여며주시며 잘 자거라 하고 다심하게 속삭여도 주시는 그런 뜨겁고 진실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일찌기 없었다.

이것은 결코 위인의 고매한 천품, 고결한 인간미에 대한 전설만이 아니다.

기와 더불어》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우리가 후대들을 위해 바치는 노력은 수십년후 후대들이 우리를 보는 눈빛을 결정하게 될것이며 그들이 건설하게 될 조국의 면모를 좌우하게 될것이다. 우리가 지금 후대들에게 많은 사랑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래일의 조국은 더 부강해지고 더 문명해지고 더 아름다와질것이다. 동무들, 후대들을 사랑한다는것은 곧 미래를 사랑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 조국은 이제 저 아이들에 의해 백화란만한 화원으로 건설되게 될것이다. 조국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후대들을 더 잘 가꾸고 돌보아주자!》

항일의 불바다속에서 마련된 참다운 미래사랑의 숭고한 력사를 천만년 꿋꿋이 이어나가실 불같은 의지를 안으셨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위한 사업에 당적, 국가적인 힘을 최대로 돌리는것은 미래를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들의 본령이며 초보적인 의무이라고 힘주어 강조하시였다.

사회주의건설은 곧 미래를 위한 투쟁이며 공화국의 전력사에 관통되여있는것이 《후대들을 위하여!》라는 참다운 후대관이다.

만고불멸의 저서인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회고록 《세

래를 안고사시는 절세위인의 위인세계,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이 비껴있다.

아이들은 결코 애어린 싹만이 아닌 나라와 민족의 래일이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에 바로 국가와 민족의 래일이 비껴있다.

무릇 강국이란 현존하는 국력의 종합적지표로 평가되군 한다. 하지만 강성한 국력을 뽐내며 강국이라 자부하던 나라들도 후대들을 튼튼히 준비시키지 못한탓에 스스로 맥없이 스러져버린 사실들을 력사는 수없이 전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아이들을 위한 사업에 당적, 국가적인 힘을 최대로 돌리는것은 미래를 위해 투쟁하는 혁명가들의 본령이며 초보적인 의무이라고 힘주어 강조하시였다.

사회주의건설은 곧 미래를 위한 투쟁이며 공화국의 전력사에 관통되여있는것이 《후대들을 위하여!》라는 참다운 후대관이다.

만고불멸의 저서인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우리가 후대들을 위해 바치는 노력은 수십년후 후대들이 우리를 보는 눈빛을 결정하게 될것이며 그들이 건설하게 될 조국의 면모를 좌우하게 될것이다. 우리가 지금 후대들에게 많은 사랑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래일의 조국은 더 부강해지고 더 문명해지고 더 아름다와질것이다. 동무들, 후대들을 사랑한다는것은 곧 미래를 사랑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 조국은 이제 저 아이들에 의해 백화란만한 화원으로 건설되게 될것이다. 조국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후대들을 더 잘 가꾸고 돌보아주자!》

항일의 불바다속에서 마련된 참다운 미래사랑의 숭고한 력사를 천만년 꿋꿋이 이어나가실 불같은 의지를 안으셨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위한 사업에 당적, 국가적인 힘을 최대로 돌리는것은 미래를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들의 본령이며 초보적인 의무이라는 뜻깊은 말씀을 하신것이 아닌가.

바로 여기에 자나깨나 미래를 안고사시는 절세위인의 위인세계,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이 비껴있다.

아이들은 결코 애어린 싹만이 아닌 나라와 민족의 래일이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에 바로 국가와 민족의 래일이 비껴있다.

무릇 강국이란 현존하는 국력의 종합적지표로 평가되군 한다. 하지만 강성한 국력을 뽐내며 강국이라 자부하던 나라들도 후대들을 튼튼히 준비시키지 못한탓에 스스로 맥없이 스러져버린 사실들을 력사는 수없이 전하고있다.

결국 나라와 민족의 래일이 비낀 아이들의 모습이야말로 진짜 강국이란 어떤 나라인가를 가르는 척도가 아니겠는가.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과 같이 어렵고 곤난한 시기에 굳건히 지켜낸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먼 후날에 가서 사회주의승리의 함성으로 높이 울려퍼질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는 그대로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사는것이 아니라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공화국특유의 전진방식이고 복잡다단한 오늘의 형세속에서도 휘황한 래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만년번영의 설계도를 펼치고 그를 확고히 담보해가시는 절세위인의 천리혜안의 선견지명이다.

그렇게 가꿔지고 지켜지는 공화국아이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앞에서 세상사람들 누구나 부러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며 조선의 앞길은 밝고 창창하다고 저마다 례찬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와 같은 미래사랑은 승리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심과 락관의 분출이며 조국의 만년번영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불태우는 가장 위대한 헌신적복무의 증례이다.

모든것이 어렵고 부족한 속에서, 오늘의 난관을 인내하고 돌파해나가자고 해도 힘에 부친 엄혹한 정세하에서도 더더욱 후대들을 위한 사업에 품을 넣는다는것은 승리에 대한 신심, 휘황한 래일에 대한 락관이 없이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후대들을 키우는 교육사업을 혁명의 래일을 담보하는 만년대계의 중차대한 사업으로 내세우시고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진군길에서 벌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시였으며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을 지펴주시고 공화국을 선진교육국으로 건설

## 절세의인의 보람과 긍지

하기 위한 사업을 진두지휘하시였다.

어려울수록, 힘겨울수록 더욱 뜨거워만 지는 어버이의 사랑으로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우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으며 수천수만금을 들여서라도 보다 개선된 양육조건을 지어주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최중대정책이고 최고의 숙원이라고 하시며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당의 정책으로 수립하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당과 국가의 중대정책들이 토의되는 중요회의들에서 아이들을 위한 중대조치들도 련이어 취해주시고 온 나라 아이들의 대회합에 몸소 참가하시여 축하해주시고 사랑의 서한도 보내주신 어버이, 새해의 첫아침도 아이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며 맞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미래사랑은 정녕 세인이 일찌기 알지 못하였던 숭고하고 열렬한것이다.

그러하기에 창조를 해도 만년대계의것으로 가장 완벽하게 창조하며 힘을 갖춰도 만년미래를 확고히 담보할수 있는 강대한 절대적힘으로 갖추도록 하시기 위하여 위험천만한 화선길을 수없이 헤치시고 이 나라의 높은 령, 험한 길은 앞장서 다걸으시며 불철주야의 사색과 로고를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얼마전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의에서는 육아정책집행정형을 단위별로, 내용별로 우결함을 정확히 찾아 총화하고 젖제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며 일관성있게 추진할데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강조되였다.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력사를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공화국의 래일은 나날이 더 눈부시게 설계되고 더 굳건히 담보될것이며 세계는 쇠퇴나 답보를 모르고 승승장구하는 조선의 모습을 끝없는 경탄속에 보게 될것이다.

리 은 별

오늘 공화국의 이르는 곳마다에서는 현대적인 새 공장, 새 마을, 새 거리들이 앞을 다투며 일떠서고있다.

모든것이 인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민들에게 더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기 위한것이기에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말한다.

우리 멋쟁이공장, 인민의 리상거리, 행복의 별천지라고.

받아안는 행복이 커갈수록 인민의 꿈과 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주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절세위인의 헌신과 로고가 어려와 눈시울 젖는 이 나라 인민들이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만복을 누리게 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확고한 의지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인민을 위한 천만고생을 더없는 락으로 여기시며 인민의 밝은 웃음과 기쁨에서 가장 큰 긍지와 보람을 느끼신다.

지난 주체103(2014)년 4월 어느날 준공을 앞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면모가 완전히 일신된 야영소의 여러곳을 오랜 시간에 걸쳐 돌아보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개건하면서 애로와 난관이 있었지만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우리가 1년을 고생하면 조국은 10년 발전한다고, 이렇게 야영소를 개건해놓으니 얼마나 좋은가고,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고 하시였다.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시기 위해, 후대들에게 만복을 안겨주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시는것을 더없는 락으로, 긍지로 여기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만이 하실수 있는 심장의 토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자들을 위해 일떠세운 현대적인 새 거리와 사회주의선경이 펼쳐진 라선땅을 돌아보실 때에도, 평양메기공장과 북변의 동해기슭 중평온실농장을 찾으시였을 때에도 사랑하는 인민들이 행복에 겨워할 모습을 그려보시며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고, 기쁜 일이면 이처럼 기쁜 일이 또 어디에 있으며 보람이면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에 있겠는가고 말씀하시였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 혁명하는 멋을 느끼시고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그이이시기에 언제 년사업이 시대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활력있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제기되는 문제들을 료해하시고 그 대책들도 하나하나 세워주시였다.

청년운동사적관건설문제며 체불체육단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 《청년전위》, 《새날》을 비롯한 각종 신문과 잡지, 교양자료발행에 이르기까지 청년사업과 관련한 모든 문제들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신 하많은 사연을 어찌 다 전할수 있으랴.

백두산영웅청년위훈전시관을 훌륭히 꾸려 백두청춘들의 위훈을 길이길이 전해가도록 하신 사실, 속도전청년돌격대가 강위력한 건설부대로서의 자기의 혁명적본태를 살려 부강조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위력을 남김없이 떨쳐나가도록 이끌어주신 이야기, 청년중앙예술선전대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혁명의 북소리를 더 높이 울려가도록 하신 사연…

참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은 공화국의 청년들의 삶을 최고의 경지에서 빛내여주시는 자애로운 스승, 위대한 어버이이시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청년들이 있지만 공화국에서처럼 청년들이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로, 혁명의 계승자들로 떠받들리우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의 오직 한길로 질풍노도쳐 나아가는 공화국 애국청년대군의 거세찬 진군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희세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가 있어 조선청년운동은 최전성기를 영원히 구가할것이며 공화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할것이다.

본사기자 김 영 범